



■ 라 팜파, 초록빛의 유형지

조 현

우주의 먼 끝에서 발을 구르며 달려와 뱃전에 부딪치는 별빛, 강기슭에 뼈대처럼 자리 잡고 있는 피보나치의 수열들. 빠라나 강의 밤하늘 위로는 저승처럼 기이한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다. 증기선의 뱃머리에서는 수사복처럼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처녀가 상처 입은 고양이를 품에 안은 채로 넋을 잃고 검푸르스름한 밤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었다. 강 저편으로 멀리 외항선이 엿갈렸다. 아마도 이 배가 떠나온 산타페로 출항하는 증기선이리라. 코리엔테스에 잠시 기항한 이 배도 곧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접안하려는지 선원들은 마지막 연료를 보일러에 모두 쏟아붓고 있었다.

“정말 대단해요. 이곳 사람들은 어찌면 이렇게 밤하늘에 그림을 그릴 줄 알다니요!”

이 젊은 도제(徒弟)가 올려다 보는 남반구의 밤하늘은 아마도 아르고 자리이리라. 고향 출신들이 이곳에 처음 오면 공통적으로 놀라는 것이 별자리이다. 고향에서는 백색왜성이니 적색거성이니



하고 그 기능이나 수명으로만 구분하는 그저그런 별들이지만, 이곳 현지인들은 밤하늘을 모험담이나 로맨스 같은 풍요로운 상상력으로 뒤덮고 있으니까.

“아르고 자리는 네 개의 작은 별자리로 이루어져 있지. 잘 헤아려 보면 고물자리, 돛자리, 나침판자리, 용골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특히 이곳 사람들은 용골자리의 알파별 카노푸스를 보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지.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로 거슬러 올라가는 굉장히 오래 된 별자리라구.”

나는 아르헨티나에서—사실은 지구에서— 첫계절을 맞는 초심자를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이 젊은 도제 역시 언젠가는 깨닫게 되리라. 이곳의 밤하늘의 별자리는 무엇보다도 강기슭 저편에 펼쳐진 무한한 초원과 결합될 때만 더 기이하게



펼쳐진다는 것을. 이곳 현지인들이 뺨빠라고 부르는 이 대초원은 무엇보다도 우주의 기적의 셈이라는 것을.

“이곳에 오기 전에 아카데미에서 사전지식을 충분히 습득했다고 여겼는데 막상 와보니 정말 놀라운 일 투성이네요!”

“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건 그렇고 어쩌다 우주의 이런 구석진 변방에서 소울마스터의 길을 걸으려 하지? 도제 수련의 첫장소로 흑할 만한 행성도 많을 텐데 말야. 온몸이 감각적인 성감대로 이루어진 요르헨스바흐나 혹은 아예 거꾸로 외재적 감각기관이 전혀 없이 오직 꿈으로만 사물을 인지하는 프란기판야 같은 곳 말야.”

“글쎄요, 왜일까요? 사실 지구는 정말로 인기 없는 곳인데 말

이죠. 사실 아카데미 과정 중에서도 지구는 정신쇠약자들의 유형 지로나 어울린다는 얘기를 간혹 들었죠. 솔직히 호모 사피엔스 자체가 화제의 대상으로 오른 적이 별로 없었죠. 지성을 논하기에는 뉴런 구조가 연약하고 그렇다고 감각을 내세우기엔 직립보행형의 육체가 빈약하죠. 세상에나, 감마선이라면 몰라도 자외선이나 적외선도 볼 수 없는 동공이라뇨!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랄까, 카드로 쌓아올린 집의 창문으로 머나먼 별빛을 본다고나 할까요? 불품없는 육체를 위태위태하게 안고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불안감이 묘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짧은 도제는 안고 있던 고양이의 상처를 살펴보며 말을 이었다. 어떻게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혼자 간판의 빈 구석에 앉아 자신의 앞발을 핥던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아직은 옛된 모습이 가지지 않는 아가씨의 품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처음에 웅크리고 있었던 간판의 구석진 틈에 몸을 기대며 자신의 상처를 핥았다.

하긴, 나 역시 소울마스터의 길을 결심하고 처음 찾은 곳이 이곳 지구였다. 그리고 그때는 나 역시 저 어린 검은 고양이처럼 나의 상처를 핥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소울마스터는 누구나 자신의 영혼의 상처 때문에 소울마스터가 된다—아닌가? 나의 경우엔 아카데미 시절 심령대수학(心靈代數學) 시간에 우연히 접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 매혹되어 지구를 선택한 셈이었지만, 지금은 모르겠다. 도대체 소울마스터란 무엇인가? 그렇다—하나의 영혼을 다른 영혼에 덧대어 모두의 영적 자각을 돕는 조정자라고 고향 행성 아카데미에서는 여전히 가르치겠지만 이 변방의 행성에서 여러 세대를 살아보니 소울마스터의 고전적 정의에 대



한 회의감이 때로는 거세게 찾아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소울마스터라는 소명을 고집스레 간직한 채 계속 체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저 가시광선의 정중앙에 위치한 초록빛에 깊게 중독되어—마치 소믈리에가 포도주에 중독되듯이— 온통 잿빛인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지 않을 뿐인가? 아니면—

내가 그런 상념에 젖어 있을 때 뱃전 어딘가에서 반도네온의 음색이 기타 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악기가 자아내는 호흡이 짧고 음색 역시 애수를 띤 어두운 빛깔이 아닌 걸 봐서 아마도 처음 악기를 만지는 사람의 손길이라. 돌아다 보니 역시나 인디 오들에게 둘러싸인 한 아이가 반도네온을 무릎에 올려 놓고 아버

지로 보이는 어른에게 운지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마도 가난한 독일계 이민자들이리라. 대체로 그들은 깊고 장중한 음색을 좋아하니깐 말이다. 그리고 그 음색은 이곳 아르헨티나의 대초원을 닮았다. 특히나 석양이 질 무렵, 지천으로 피어나는 샬비어처럼 검붉은 뺨뺨의 하늘이 말이다. 하긴, 일년 내내 가 봐야 척박한 토양뿐인 가난한 북유럽의 농민들로서는 이곳 대초원의 검은 흙이 야말로 꿈의 대지이자 애수의 영토가 되리라. 그리고 많은 이민자들이 인디오들과 뒤섞이며 드넓은 흙에 기대어 뺨뺨의 한 끝에 정착해서 소를 돌보리라. 마치 우리가 떠나면 행성에 와서 소울 마스터란 이름으로 다른 이의 영혼을 조율하는 것으로서 스스로의 영혼 역시 달게 연마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건 그렇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는 왜 자신의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구에서 한 생을 더 거듭하겠다고 청원한 거죠? 연방법정에서 정한 최소 형기의 유형을 다 채웠는데 말이죠?” 젊은 도제는 마치 증기선의 승무원이 승선표를 검사하듯 원피스 앞자락을 매만지며 물었다.

나와 더불어 이 젊은 도제가 이 배에 승선한 이유, 즉, 우리와 동승한 노시인(老詩人)에 대한 얘기였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 나도 며칠 전 곧 닥쳐올 그의 임종에 맞추어 형기의 종료를 본인에게 통보할 때, 그가 왜 기한을 자발적으로 연장하려 했는지 의아해 했다. 사실, 행성연방법정에서 구형한 그 고유한 조치는 비록 지구인의 성대로는 발음할 수 없을지라도, 이 젊은 도제가 그러한 심령적 처분을 유형이란 의미의 에스파냐어로 옮긴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적절한 번역은 아니다. 물론 교과서적으로 유형이나 수감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곳 행성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재활치료나 재훈련 혹은 반성기라고 옮기는 것이 차라리 본래의

뜻에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글쎄,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 판단해 보렴. 잠시 후에 그가 요청한 마지막 진술을 듣고선 말야.” 나는 강기슭의 어린 야생 라임나무를 보면서 말했다. 그리고 생각했다—이렇게 하여 이 젊은 아가씨에게 첫 임무를 맡긴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이다. 이제 막 푹푹하게 초록을 빛내는 라임나무의 잎들은 피보나치의 수열에 따라 순환적인 나선형을 그리며 돌아나고 있었다. 하긴 젊은 도제 역시 이렇게 엄밀한 영혼의 법칙을 터득해가며 도제로서의 수련을 시작해야 할 터이다. 즉, 이제 곧 문제의 그가 갑판으로 나올 타이밍으로 그녀는 소울마스터로서 자신의 영적인 자질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리라.

그건 어쩌면 매우 쉬운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주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마치 저 야생의 라임나무가 피보나치의 수열을 자신의 외부로 차근차근 발현하듯이, 문제의 그가 지구인의 영혼에 덧대어 살아온 동안 깨달은 심령의 계송(偈頌)을 듣고 나서 청원의 수용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고행행성 최고법정의 위임에서라기보다는, 소울마스터와 도제로서 당당한 우리들의 소명인 것이다.

*

지구 시간으로 거의 한 세기 전, 이곳에서 아르고 자리라고 부르는 항성계에서 균류 및 무척추 곤충으로 이루어진 행성이 새로 발견되었다. 이런 균류형 행성이야 예사로울 것도 없으므로 간략하게 탐사위원회에 보고되고 말 안건이—마치 지구의 학자가 새

로 발견된 생물종에 라틴어 학명을 붙이듯이 서류작업으로 끝날 사안이—사건화 된 것은 새로 발견된 행성의 균류 및 곤충류 일부가 탐사 도중에 몰살되었기 때문이었다. 최초에는 탐사선의 예기치 못한 오작동 때문으로 알려졌으나 진상조사 결과 다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탐사선의 책임자가 그 원시생명체들이 효용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몰살시켜 버린 것이다.

물론 효용성만 따지면 본국 행성에 적합하지 않는 생명체들을 처리하고 유용한 외래종을 이식하는 게 효율적이긴 하지만, 본국 행성의 탐사위원회에서는 효용성 여부와 관계없이 생명의 다원성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오래된 규약을 유지시켜 왔다. 그건 지성체라면 오랜 시행착오 끝에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보편적인 당위였는데, 문제가 다소 심각하게 확대된 것은 심리검사 도중에 탐사선의 책임자가 그 균류들을 몰살시킨 것은 일종의 미학적 행위였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사실 조사선의 촬영 결과, 그 행성을 덮은 거대한 균류의 일부가 어떤 기하학적인 수열에 따라 검게 타버린 것이 관측되었다—마치 지구의 체스판이나 하운드 투스 체크무늬처럼 말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 기준에서 지성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균류들을 몰살시켜가며 작위적 외래 문화를 구현한다는 것이 어떻게 심령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겠는가. 다른 생명의 정신에 자신의 영혼을 살포트 포개어 그 생명의 모든 감각과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우리의 문명은 성숙되었지만, 우리보다 더 극도로 진화한 고등생명체의 기준으로는 우리 역시 균류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것이다—사실 지성이나 문화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니까 말이다. 또한, 그 행성의 균류 역시 포자의 전파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기도 했다.

따라서 본국 행성의 연방법정에서는, 미학의 추구라는 그의 주장보다는 ‘가녀린 생명 하나에도 온 우주가 담겨 있다’는 더 우월한 가치를 존중하기로 했다. 사실 우리 문명은 이렇게 단순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들 자신의 일부를 파괴해가며—때로는 거의 모두를 파괴하여 심지어는 문명 자체가 멸종될 대재난도 여러 번 거치면서—올고 애통해 하며 오랜 시간을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하여 행성연방의 최고법정에서는 신중한 심리 끝에 문제의 그에게 심령의 전이 체험을 조치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배심원이자 사후관리자 격인 심리치료위원회는 적절한 유형지로 지구를 추천하였다. 법정에서—이 기관의 역할은 사실 다른 것이지만 에스파냐어에는 달리 번역할 개념이 없으므로 법정이란 어휘로 옮긴다면—결정한 조치는 일종의 인과응보적 자아치료였다. 즉, 자신이 피해를 입힌 그 당사자의 삶을 되풀이 하여 자신의 문제점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티브인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인 균류에게는 반성적 성찰에 필요한 충분한 지성이 없었으므로, 연방행성 학술위원회 산하의 심리치료위원회에서는 고심 끝에 생명의 생명에 대한 수탈이 극심하게 자행되던 19세기 지구를 유형지로 추천한 것이다.

*

“그런데 지구라는 점은 그렇다쳐도, 왜 하필이면 라틴아메리카죠? 저항 능력이 없는 지성체에 정신을 이식하여 그들의 비극을 체험시키는 것이라면—마치 앞으로 한동안 지구에서 유행할 심리역할극처럼—노예로 잡혀가는 17세기의 아프리카 흑인들이나, 백인들에게 대량학살 당하는 18세기의 인디언들도 있잖아요. 그

도 아니면 20세기 중엽의 아우슈비츠도 있구요. 그리고—.”

젊은 도제의 의문에 답을 하기라도 하려는듯, 선실의 문이 열리고 턱수염이 기른 노인이 눈시울을 붉히고 걸어나왔다. 바로 그였다. 한때는 예술의 이름으로 한 행성의 절반에 이르는 생명체를 모자이크 모양으로 몰살시킨 이, 그리하여 우주의 변방 행성으로 유배되어 본래라면 법학을 전공하다가 일찍 요절할 운명을 지닌 한 청년의 영혼에 덧대어져 음유시인으로 한 생을 살아온 이, 그리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통고 받고 한없이 울었던 이, 하여 마지막으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자신이 평생을 몸담아온 대초원과 빠라나 강을 둘러볼 것을 원하던 이—.

그의 인간식 이름은 라파엘 오블리가도. 한때는 조국의 시인으로 불렸지만 그 자신은 빠라나 강의 시인이란 칭호로 흡족해 했던 이, 하지만 가끔은 꿈에서 모호하게 되살아나는 전생의 기억에 괴로워하며 애통이나 죽음 혹은 죄의식이나 회한을 즐겨 노래 하던 이, 하여 생의 여로의 끝에서 우리 소울마스터의 방문을 받고 자기 존재의 본질을 깨달아 이 대초원에서의 한 생을 더 거듭하고자 이례적인 청원을 하였던 이, 바로 그 노시인이었다. 과연 그가, 한 생을 마감하는 계송이자 다시금 반복하고자 하는 윤회의 희원을 담아 나와 젊은 도제에게 들려주겠다고 한 노래는 무엇일까.

난 나뭇가지들이 바람의 숨결에 따라 일렁이는 강기슭을 쳐다 보았다. 아마도 저 너머의 초원에는 나팔꽃이나 야생 제라늄, 흰 독말풀이나 명아주, 혹은 엉겅퀴나 쑥국화가 월계수 잎처럼 넉넉한 품을 가진 옴부나무나 롬바르디아 포플러와 함께 자라고 있으리라. 그리고 인디오들은 처연한 바람의 노래를 들으며 드넓은 뿔뿔과 함께 윤회하며 생을 거듭하리라.



갑판에는 반도네온과 기타가 서로 얽혀 하나의 거룩한 화음을 연주하고 있었다—마치 하나의 영혼이 다른 영혼에 덧대어져 새로운 영혼으로 결합되듯이. 하선을 준비하던 승객들은 잠시 분주한 움직임을 멈추고 한 인간이 깊이 오염하는 슬픔을 담은 반도네온과 마치 어머니처럼 그 울음을 다독이는 기타의 협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소리는 대초원에 일렁이는 바람의 호흡을 닮았다. 그 노인, 라파엘 오블리가도는 기력이 쇠한 듯 구부정하게 연주자들 사이에 서더니 가우초식의 모자를 벗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평생을 빠라나 강과 뿔뿔을 떠돌며 빠야도르로 살아온 늙은이올시다. 빠야도르라는 음유시인의 칭호가 부끄럽긴 하지만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이제 제가 평생 지어온 노

래 중에 한 곡을 들려드리고 합니다. 사실 이 노래를 지을 때도 막연한 슬픔이 느껴졌지요. 하지만 저승에 한발을 들여놓은 오늘에서야 모호했던 그 의미가 거울처럼 선명해지는군요. 그렇습죠. 이 노래는 제 전생의 죄에 대한 고백성사이자 어머니 뺨뺨에 대한 울음이라는 것ですよ.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곡명은 라 뺨뺨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시인을 알아본 반도네온과 기타 연주자의 선율에 맞추어 생의 온 기력을 다하여 자신의 시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여명은 청춘을, 노래를, 조화를
 비취 주는 아름다움.
 오후는 반영(半影)의 몽상,
 낮을 거느린 밤의 키스.
 신비의 라 뺨뺨 오후는
 숲이나 초원의 오후가 아니다.
 라 뺨뺨의 오후는
 더 슬프다, 더 아름답다, 더 웅대하다,
 황금빛 태양 아래 더 감미롭게 죽는다.
 넓은 외로운 평야에서 어느 소리도 듣지 말지어다.
 기도(祈禱)의 마지막 울리는 소망 같은
 감미롭기 이를 데 없는 모호한 소리만을 들을지어다.
 꽃향기처럼, 선회하는
 산들바람의 키스에 입별린
 영혼은 갈가리 찢어져 방향 없이
 떠돌고 있다.
 빛의 물결로 죽어 가고 있다.

그가 부른 노래는 일종의 진혼곡이었다. 과연 아르헨티나의 대초원이 낳은 음유시인은 그렇게 자신이 전생에 저지른 오만이 무의식 속에서 태동함으로 인해 평생을 상처 입고 살아왔던가. 뿔뿔이 대초원에 황혼이 지거나 바람이 불어오면 느닷없이 각인되었다가 이윽고 다음 순간 사라지고 말았던 전생의 기억에 의해 말이다. 아마도 꿈을 꿀 때 그 기억은 저승 같았지만, 또한 꿈에서 깨고 나면 그 회한은 그의 마지막 청원처럼 모호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가 노래했던 산토스 베가는—악마에게 패하여 대초원을 방랑하게 되었다는 그 음유시인은— 그 자신의 분신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그는 이제 지구인도 아닌, 혹은 본국 행성인도 아닌 정체성이 뒤섞인 새로운 인간이 되어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 대지를 노래하고 있다.

난 눈을 감고 신중하게 그가 토해내는 울음을 들었다. 한 인간의 영혼의 울음을 듣고 이윽고 새로운 업(業)을 조율해 주는 것이 소울마스터의 숙명인 것— 그리고 어느덧 진혼곡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네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존재물들이
 솟아나는 것을 너는 떨리는 영혼을 안고 본다
 그것들의 미소, 그것들의 목소리,
 그것들의 귀여운 목소리,
 과거의 긴 오열(嗚咽)과도 같다.

아르고 자리의 균류나 곤충들은—그대로 두었으면 1억년 후 어떤 위대한 문명을 잉태했을 수도 있었을 그 귀여운 생명체들

은, 마치 백인들이 침입하기 전 남미의 유산들처럼— 이제는 사라졌다가 수백 광년 떨어진 지구의 대초원 위에서 한 노시인의 울음으로 다시 솟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나 역시 젊은 도제의 의문에 분명히 답할 수가 있었다. 그가 왜 하필이면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도 아닌 이 대초원에서 한 생을 살았는지를. 그건 뭐랄까, 이 대초원이 모든 사라져가는 세계에 대한 향수를 품었기 때문이리라. 하여 미학은 이렇게 막막한 지평선 한복판에서도 조망될 수 있으며, 이 대초원의 모진 바람 속에 자라는 풀과 나무는 야만과 문명의 이분법을 넘어서 척박한 것은 척박한 대로 거룩하다는 하나의 징표이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뺨뺨의 이러한 풍경들은 대초원의 한 가운데서 소년에서 노인으로 늙어 간 이 사람의 영적인 깊은 곳을 건드렸기 때문이리라. 하여 그는 예술의 근원적 의미에 대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금 성찰하였는지도.

나는, 노래를 다 들은 젊은 도제가 잠시 침묵하다가 노시인과 짧게 눈을 맞추는 것을 보았다—그리고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생의 막바지에 다다른 노시인 역시 고개를 숙인 젊은 처녀에게 감사의 눈길을 보낸 다음 부축을 받으며 하선을 했다.

“청원을 받아들인 건가?” 노시인과 눈길을 주고 받은 젊은 도제에게 나는 물었다. 이 젊은 아가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또렷한 어조로 대답했다.

“글쎄 뭐랄까요, 그가 이 대초원에서 한 생을 더 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뺨뺨를 노래하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에는 아직도 부족한 게 더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던 거죠—”

그렇다. 이 젊은 도제는 기대 이상으로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이다. 사실 난 며칠 전 이 노시인의 청원에 대하여 본국 행성의 담

당 위원회에 질의를 했다—꿈의 통신을 통해 말이다. 위원회에서는 내가 전송한 그의 여러 편의 시들을 분석하고 그의 시가 다소간의 현학에 젖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물론 그의 시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나 낭만적인 감수성은 영적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이를테면 끄리오요 방언을 쓰지 않고 세련된 어휘를 구사하는 점은 아직도 그의 자의식 내부에 일종의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물론 그와 동일한 시공간을 살아가는 다른 시인이 그러한 스타일의 시를 썼다면 고급 가우초 문학이라든가 혹은 훗날 에스파냐어권의 문학사에 있어서 모데르니스모라고 불리우는 신경향의 고품격 예술사조의 선구자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최소한 그의 경우에는—전생의 업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는 목적에 비추어—그다지 적절치 못한 미의식이라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하여, 적절한 인간의 영혼에 덧대어 막막한 대초원에서 한 생을 더 거듭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인준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현지의 우리들에게 위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다음 생은 어떤 인물이 되나요?” 젊은 도제가 물어본 것은 사실 입문수련 중인 도제가 마스터의 관문을 통과하는 데 가장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자질에 관한 의문인 것이다. 하나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가 적합하게 덧낼 수 있는 다른 영혼을 찾아낸다는 것은, 마치 대리석에서 아름다운 육체의 곡선을 뽑아내는 조각예술처럼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 이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인물이 검색되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이 배에 타고 있는 아이였고, 심지어는 그 아이는 노시인의 마지막 노래를 듣기까지 했다. 사실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서라고는 했지만, 노시인에게 마지막 노래를 들려달라고 요청

한 것은 이 외항선에 안데스 산맥의 끝자락이 고향인 한 소년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막 열두 살이 된 그 투쿠만의 사내아이는 이 증기선의 갑판 위에서 상처받은 영혼의 재생을 노래하는 이 노시인의 노래를 듣게 되고, 어찌면 이 대초원의 마지막 빠야도르로서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노시인의 영혼의 일부는 이 소년의 영혼에 덧대어져 다시금 한 생애를 안데스 산맥과 팜파, 그리고 남미의 자연 속을 유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어찌면 우주의 시원에서부터 예정된 운명이리라.

“차베로, 어서 내리자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 소년의 어머니가 노시인의 노래에 취하여 우두커니 서 있는 사내아이를 불렀다. 훗날 차베로란 본명을 버리고 아타왈파 유팡키라는 이름을 취할 운명의 아이였다. 그리고 젊은 도제의 첫임무는—도제 자신도 모르게 소년의 영혼 깊은 곳에, 내면의 노래인 비달라의 씨앗을 심어주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졌다.

이제 젊은 도제는 노시인의 영혼이 덧대어질 이 어린 소년이—만약 노시인의 영혼이 덧대어지지 않았다면 그저 평범한 인디오의 삶을 살아갈 운명이었지만— 하나의 위대한 음유시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리라. 그리고 잠깐 고개를 끄덕거린 것으로 여러 가지 잠재태의 우주 가운데의 하나를 현실태의 우주로 실현시킨 이 젊은 도제는, 이 어린 소년이 이 대초원 위에서 마지막 빠야도르로서의 자신의 생을 살 수 있도록 적절한 순간 몇번의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앞으로 6년 후 이 어린 소년이 ‘별들과 골짜기를 이어주는 원주민의 길’을 첫작품으로 노래할 때나, 혹은 30년 후 이 어린 소년이 드디어 장년이 되어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시인 폴 엘뤼아르의 집에서 에디트 피아프를



만나게끔 도움을 주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시간을 건너 뛰며 덧대어진 영혼의 생의 항로를 미묘하게 조율해주는 것이 바로 소울마스터의 길인 것이다. 마치 빠야도르가 뺨뺨를 떠돌며 온갖 초원의 숨결들을 생명에서 다른 생명으로 덧대어 노래하듯이 말이다. 하여, 이 짧은 도제는 언젠가 ‘시인이 죽으면 십자가 아래 묻지 말고, 나무 밑에 심어야만 제격이다. 세월이 흐르면 나무에 가지가 돋아나고 둥지가 생기고 둥지에 새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시인의 침묵은 제비가 될 것이다’라고 염원한 이 아이가 묻힌 무덤가를 방문하게 되리라. 그리고 듣게 되리라. 이 변방의 행성에서 두 번의 생을 거듭하며 영혼을 연마한 다음, 남은 육신은 무성한 떡갈나무 아래 묻어두고 저 먼 곳의 별로 귀향한 그 아이의 영혼의 노래를 말이다.

어쩌면 소울마스터도 한 명의 빠야도르—, 나는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애상에 젖어 빠라나 강의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이 우주의 변방에서 호모 에렉투스가 처음 등장할 무렵 고향을 출발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빛이 막 뿔뿔의 상공에 얼룩지고 있었다. 이 변방의 행성에 삼엽충이 번성할 무렵 출발했던 빛, 거대한 양치식물의 전성기에 출발했던 빛,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를 거쳐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 출현했을 때 우주의 구석구석에서 출발했던 온갖 빛들이 생의 비밀을 터득하려는 듯 다채로운 운명들로 뿔뿔의 밤하늘을 모자이크하며 기적처럼 동시에 빠라나 강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간판 위의 구석에서는 여전히 어린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자신의 상처를 핥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그 고양이를 어루만져 줄 수 있으나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핥게 내버려 두는 것이리라—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의 상처는 스스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없이 쓸쓸해 하는 고양이에게 잠시 눈을 맞춰 줄 수 있으리라. 자애롭고도 동정심 어린 눈길로 지켜봐 주는 것—, 생명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나 역시 너처럼 영혼의 상처를 견디며 살아간다는 공감의 눈빛이리라.

그런 눈길로 나와 젊은 도제—이렇게 우리 둘은 아르고 자리를 올려다 보았다. 그리스 신화의, 금털의 양모피를—이르테면 금으로 된 양모피는 영혼의 순수한 본질에 대한 은유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찾아 향해하던 아르고 호를 탄 그 별자리를 노시인 역시 이 뿔뿔의 대초원에서 평생 동안 밤마다 올려다 보았으리라.

어쩌면 모든 생명의 운명이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얽히는

것이리라. 그리고 또 어쩌면 이 우주의 변방 행성에서 체류하는 내 삶의 다른 곁에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지성체의 영혼이 덧대어 있을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느끼고 고뇌하는 모든 희노애락을, 그 역시 공명하는 소리굽쇠처럼 덧대어 진동하는 것인지도 모르리라—. 여하튼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종족의 운명을 오래도록 지켜볼 것이다. 오늘밤 지구의 시간은 1920년 3월, 그리고 나는 소울마스터—.□

조현 - 소설가. 2008년 「종이냅킨에 대한 우아한 철학」으로 동아신춘문에 당선.
